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이란-이스라엘 완전한 휴전 합의 연준 부의장은 7월 금리인하 지지
 - 미국 6월 S&P 글로벌 종합 PMI, 전월비 하락. 일부 물가상승 압력 신호는 지속
 - 유로존 6월 HCOB 종합 PMI, 전월비 보합. NATO는 국방비 GDP의 5%로 상향
 - 일본 재무성, 금년 장기국채 발행 축소를 정식 승인. 금리 상승 등을 고려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중동 갈등 완화, 연준 보우먼 부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제한적 수준의 이란 보복, 7월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 및 화학 관련주 약세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유가 급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이 배경
유로화 가치는 0.5% 상승, 엔화 가치는 약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보우먼 부의장의 7월 금리인하 지지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69.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2.0원, 0.9% 하락). 한국 CDS 강보합

		6/23일	6/20일	전일대비			6/23일	6/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25.2	5,967.8	+0.96%	국채 금리 10y	미국	4.35%	4.38%	-3bp
	유럽	535.03	536.53	-0.28%		독일	2.51%	2.52%	-1bp
	중국	3,381.6	3,359.9	+0.65%		영국	4.49%	4.54%	-4bp
	일본	38,354	38,403	-0.13%	CDS 5y	한국	28bp	28bp	+0bp
	한국	3,014.5	3,021.8	-0.24%		중국	53bp	54bp	-1bp
환율	달러지수	98.39	98.71	-0.33%	위험 지표	EMBI+	-	378	-
	유로화	1.1578	1.1523	+0.48%		VIX	19.83	20.62	-3.83%
	엔화	146.15	146.09	-0.04%		WTI유	68.51	73.84	-7.22%
	위안화	7.1789	7.1815	+0.04%	원자재	구리	485.0	483.4	+0.33%
	원화	1,384.3	1,365.6	-1.35%		금	3,368.5	3,368.4	+0.0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이란-이스라엘 완전한 휴전 합의. 연준 부의장은 7월 금리인하 지지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게시. 이번 휴전은 12시간 동안 유지되며, 그 시점에서 이번 전쟁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
- 이란은 전날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 하지만, 카타르 외교부는 이번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사일은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었다고 발표. 주요 언론은 이란이 공습 당시 카타르 정부에 공격을 예고하고 대피를 안내했다고 보도
- 시장에서는 이란과 미국 및 이스라엘의 충돌이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통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 이에 국제 유가는 급락(WTI 68.5달러, -7.2%).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면서 유가를 낮게 유지하라는 압박을 지속
- 카타르 미군 기지 공격에 앞서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 아울러 이란의 아락치 외무장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 관련 대응을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 한편, 연준에서 매파로 인식되는 보우먼 부의장은 노동시장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반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금리인하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또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억제가 유지되면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첨언
-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 또한 최근까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약하다고 평가.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4/2일(상호관세가 부과된 시기) 이전에 '황금 경로'라고 불렸던 궤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금리인하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부연
- 일부에서는 지난 주 월러 이사에 이어 보우먼 부의장까지 7월 금리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연준 내 조기 금리인하 관련 기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 다만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아직 21% 수준에 불과하며,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78%로 높은 수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6월 S&P 글로벌 종합 PMI, 전월비 하락. 일부 물가상승 압력 신호는 지속

- 6월 S&P 글로벌 종합 PMI는 52.8로, 전월(53.0) 대비 소폭 하락. 부문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전월과 동일(52.0→52.0)했고, 서비스업은 상승세 둔화(53.7→53.1). 한편, 세부항목 가운데 제조업 부문 투입가격지수는 큰 폭 상승(64.6 →70.0)하여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가능성을 지적
- 한편, 5월 기존주택판매(연환산)는 전월비 증가(400만채→403만채).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 등으로 주택판매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유로존 6월 HCOB 종합 PMI, 전월비 보합. NATO는 국방비 GDP의 5%로 상향

- 6월 HCOB 종합 PMI는 50.2로 전월과 동일.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비 보합(49.4→49.4)을 나타냈고, 서비스업은 소폭 상승(49.7→50.0). 시장에서는 정체 국면의 유로존 경제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한편, NATO 회원국들은 24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높이기로 합의. 이는 그 동안 NATO가 권고한 목표(2%)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가 반영된 결과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

- 인민일보는 전세계적인 스테이블코인 확산 추세에 순응하여 위안화도 국제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 이는 미국 달러화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제시장 영향력 강화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

■ 일본 재무성, 금년 장기국채의 발행 축소를 정식 승인. 금리 상승 등을 고려

- 금년 국채발행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장기국채의 발행을 줄이기로 결정. 구체적으로 7월부터 이를 시작하여 내년 3월까지 총 32조엔 규모의 20년물, 30년물, 40년물 입찰 규모를 축소할 계획. 다만 이를 고려하여 단기 국채 발행은 늘릴 방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24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발언, 미국 4월 FHFA 주택가격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세 가지 시나리오 예상 - Financial Times

(The US, Iran and markets)

- 미국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나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크게 악화된 점은 사실. 향후 이란 정권의 대응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 첫째, 이란 정권이 한발 물러나 미국 및 이스라엘과 협상을 통해 관련 합의에 도달. 이러한 방법이 가장 긍정적
- 두 번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경우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재가속, 글로벌 경기 둔화,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및 주가 하락 등이 예상. 셋째,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돌입.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로 전시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고, 의회·정부·시장·연준 간 복잡한 갈등을 초래

■ 미국 트럼프의 연준 압박, 파월 의장은 진퇴양난 시나리오에 직면 - WSJ

(Trump's Relentless Fed Pressure Creates Lose-Lose Scenario for Powell)

- 트럼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공개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연준 의장에 금리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 아울러, 연준 위원들의 금리 향방에 대한 의견이 나뉘면서 파월 의장은 정치적, 경제적 위험 해소 관련 복잡한 상황에 직면
- 만일 연준이 트럼프 요청을 수락하여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시장 신뢰 상실로 연결될 가능성. 한편, 파월 의장은 관망의 태도를 유지. 그러나 만일 물가 상승이 없이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면, 트럼프의 추가적인 압박에 직면하여 파월 의장의 입지는 상당히 악화될 전망

■ 이란-이스라엘 갈등, 중장기 측면에서 유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소지 - Financial Times

(Impact of Iran-Israel conflict on oil could last for years)

-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이후 배럴당 브렌트유 가격은 10달러 상승에 그쳤는데, 이는 OPEC8+의 감산 해제로 단기 측면의 공급 우려가 해소되었기 때문. 다만 중기적으로 이란 내의 강경파 부상, 소수민족 반란 등이 현실화되면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이 수년간 공격을 받아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 또한 이는 OPEC+ 여유 생산능력 감소, 미국 셰일 생산 정점(2027년 예상)과 맞물릴 가능성.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정책 등으로 석유 수요는 '40년대까지 일일 1.1억 배럴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중장기 유가 상승 압력도 지속될 가능성

■ 미국 국채 vs. 주식, 기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가 유리 - 블룸버그

(Don't Be Fooled by Treasury Yields)

- 관세, 중동 갈등 등 불확실성이 만연한 금융시장에서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재차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국채금리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 이에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 하지만, 국채와 이익수익률(earnings yields) 비교 시 인플레이션 요인 등을 감안할 필요
- 일례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3.9%)과 S&P500의 향후 2년 이익 수익률 전망치(4.9%) 비교 시, 2년 기대 인플레이션(2.5%)을 적용하면 실제 국채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1.4%(3.9%에서 2.5%를 차감)에 불과
-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와 비교할 경우 주식 투자의 경우 3.5%(4.9%에서 1.4% 차감)의 위험 프리미엄이 발생. 아울러 지난 35년 동안에도 '00대 닷컴 버블과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포함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식 투자가 채권 투자보다 우위(블룸버그). 이에 주식 투자를 위한 위험 감수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

■ 미국 트럼프의 對이란 전쟁, 진정한 승리를 위해 긴장 완화설득이 요구 - Financial Times

(Real success for Trump in Iran will require de-escalation)

■ 미국 달러화 약세, 유럽 기관의 주식 매도와 아시아 투자자의 채권 이탈 등이 배경 - Reuters

(Who's selling? Breaking down the dollar's breakdown)

■ 미국의 프래킹(셰일가스 채굴 공법) 역량,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를 일부 상쇄 - WSJ

(Iran Has an Oil Card to Play. So Does the U.S.)

■ 이란 정부, 무조건 항복제한적 공격·대규모 작전의 세 가지 선택지 직면 - 블룸버그

(Iran Has Three Options Now. Two Are Terr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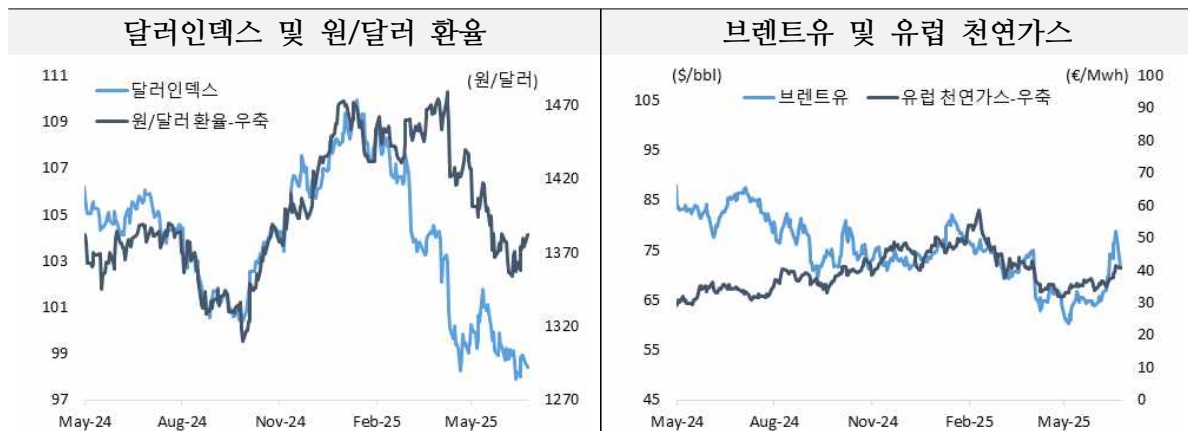
■ 중국의 위안화 절상, 장기적으로 경제 균형 회복과 국제화에 유리 - Financial Times

(China needs to take a long-term view and let the renminbi ris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